FULBRIGHT ALUMNI NEWSLETTER
No. 15 November 2012
THE NEWSLETTER OF THE KOREA FULBRIGHT ALUMNI ASSOCIATION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15 (우121-874) T. 02-3275-4018 F. 02-3275-4028

동문회 2011년 정기총회 개최

사진: 동문회 임원진 및 고문단과 2012-13 학위과정 장학금 수혜자들

2011년 12월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개최된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2011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는 동문들,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자, ETA 원어민 강사 등, 10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먼저 한국영어영문학회장인 신문수 교수(서울대)의 "기후변화와 인문적 상상력"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는데, 문학 작품 속에서 다루어지는 기후 변화에 관한 예들을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총회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였는데, 김도훈 교수(경희대), 윤태화 교수(가천대)가 선임되었다. 이어서 권오량 회장이 동문회가 후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소개를 한 후, 현재 서울 동부 하나센터에서 탈북청소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Ms. Phebe Kim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과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풀브라이트정신에 부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총회는 이 영어교육프로그램 후원에 필요한 기금 모금을 결의하였고, 이재규 부회장(KAIST 교수)을 모금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재결성을 추진중인 지역동문회인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대구경북지부, 광주전라지부의 결성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 풀브라이트 장학생 후보로 선발된 42명중 22명이 참석하여 동문회의 밝은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동문회의 고문단과 상임임원진이 제공한 경품의 추첨이 있었다. 1등 경품은 롯데관광 협찬 동경왕복항공권(2인용)이었고, 이용훈 기획이사가 당첨되었다.

(2페이지에 동문회 2011 총회 경품출연 목록 참조)

2012 한국 풀브라이트 교육문화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12년도 한국 풀브라이트 교육문화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30일 "서구에서의 한류 확산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최근 서구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문화적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셔서 연찬을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움이 끝난 후 곧이어 금년도 풀브라이트 동문회 총회도 열립니다.
금년에도 그간의 동문회 활동 보고와 만찬, 경품 추첨 등의 순서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부디 오셔서 동문들과 정겨운 식사와 담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오후 4시 ~ 5시 50분 심포지엄
오후 6시 ~ 8시 총회 및 만찬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총회 회비: 3만원

권오량 제12대 회장의 퇴임사

회장 임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원 여러분에게 퇴임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인사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문회가 추진한 중요 사업 중의 하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온 풀브라이트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들이 초중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방과 후나 주말에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2011년 가을학기에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평화 증진이라는 풀브라이트 정신을 잘 구현한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이 사업을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문회가 추진한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은 그동안 비활동적이거나 사라진 지역 동문회를 복원하거나 재결성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동문회 지부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동문회는 그간 동문들과의 의사소통을 늘이는 데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재임 기간에 한 일이 동문회의 활성화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그간 여러모로 성원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11.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제12대 회장 권오량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2011 정기총회 출연경품 목록

출연자	경품	단가	개수
권오량 회장	일본 동경 왕복 항공권 (2인용)	120-140만원	1매
	상품권 (30만원 상당)	10만	3매
	양주: Royal Salute: The Hundred Cask Selection	면세 20만원	1병
	양주: Johnnie Walker Blue Label	20만원	1병
진영선 부회장	향수: Tamango Leonardo	15만원	1병
	향수: Bulgari Rose Essentielle	8만원	1병
김인철 부회장	책(단행본)		50권
	넥타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1개
	상품권 (20만원 상당)	10만	2매
윤복자 고문	상품권 (20만원 상당)	5만	4매
송상현 고문	삼양 국수 (4인기준 1회분 포장)		50포
고문	고려대 참기름		2병
최 영 고문	상품권 (20만원 상당)	5만	4매
이대순 고문	넥타이 (대통령 넥타이 디자이너의 작품)		5개
신영무 고문	와인		6병
김도훈 감사	와인 30병 (이중 20병은 식사시 소비)		10병

풀브라이트협회 제34차 연차대회 참석

2011년 11월 3일-6일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풀브라이트협회의 제 34차 연차대회에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를 대표하여 권오량 회장과 진영선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첫날인 11월 3일 저녁에 해밀턴 호텔에서 열린 예술분과 발표회에서는 진영선 부회장이 한국풀브라이트프로그램 60주년 경축 미술전시회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이 전시회는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뉴욕, 워싱턴, 서울에서 열린 순회 전시회로, 풀브라이트 한국측 동문 20명과 미국측 동문 13명이 Cross-Cultural Visions라는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런 뜻깊은 사업을 한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하였다.

권오량 회장은 11월 6일에 "다양하고 붐비는 세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 개발"(Creating Sustainable Solutions for a Diverse, Crowded World)이라는 주제의 전체 발표회에서 한국풀브라이트프로그램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관해 보고하고 풀브라이트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s)들의 자원봉사를 조직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국풀브라이트프로그램 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자국에서도 비슷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다른 나라의 참석자들이 관심을 표하였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참석자들이 사업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지회 복원 및 재결성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제12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지회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총 11개 지회가 결성되었다. 지난 1987년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가 결성될 무렵에 지역동문회가 먼저 결성된 후, 전국 총동문회가 결성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동문회가 점차 활동이 줄어들면서 존재가 희미해졌는데 제12대 집행부에서 이들 지역동문회의 복원/재결성 사업을 추진하였었다. 이 사업은 이용훈 기획이사가 지부결성간사의 책임을 맡아서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동문회 지회가 자발적으로 재결성되도록 안내한 결과이다. 지회별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부명	회장		부회장		총무		비고
서울	권오량	서울대학교 교수	김인철	감사원 감사위원	정성욱	미디어연구소 봄 대표	본회 겸임
인천	강석화	경인교육대 교수			이대식	경인교육대 교수	
대전/충청	신 진	충남대학교 교수			김은영	침례신학대 교수	
대구/경북	한상호	경주대학교 교수			최정우	영일고등학교	
광주/전라	신경구	전남대학교 교수			민경숙	광주과학기술원 팀장	
경기	이 철	한국철망공업조합	김용성 이기한	삼육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교수	박일규	서울예술대학 교수	
강원	황원규	강릉원주대 교수			노전표	연세대(원주) 교수	
부산	안동환	부산대학교 교수			주지홍	부산대학교 교수	
울산/경남	정준금	울산대학교 교수			박시영	울산대 국제교류원	
제주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해외	김미경	일본히로시마 시립대					온라인

지역동문회 중에서 일찍 결성된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대구경북지부, 광주전라지부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총회에서 이들 지부 임원들을 소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2012년 6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역 4층 "T원"에서 전국의 총 11개 지부 임원들과 총동문회의 상임임원, 고문들이 상견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고문단은 재결성된 지회의 임원들에게 그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 활성화된 지회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참석한 지회장 혹은 대표들은 지회 결성의 경과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이날 참석한 지회 임원과 고문단은 다음과 같다.

본회 고문: 강성학, 김기순, 김두현, 김용권, 윤복자, 최 영
본회 상임임원진: 권오량(회장), 김인철(상임부회장), 이용훈(기획이사),
정동수(총무), 정성욱(총무), 최창수(기획이사)
지회임원진: 황원규(강원지회장), 민경숙(광주전라지회 총무), 한상호(대구경북지회장),
최정우(대구경북지회 총무), 안동환(부산지회장), 정준금(울산경남지회장),
강석화(인천지회장), 이대식(인천지회 총무), 민 기(제주지회장), 김미경(해외지회장)

북한이탈주민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1년 10월~현재)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는 비수도권 학교에 배치된 미국인 풀브라이트 영어보조교사(ETA: English Teaching Assistant)들이 몇 년 전부터 실시해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자원봉사를 지난 해 가을부터 체계적인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전국 각지에 산개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돕는 사회복지기관인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대상 대안학교)을 접촉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한국인 풀브라이트 동문 영어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조직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 서울동부하나센터에서의 탈북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왼쪽에 서 있는 이가 최초의 동문 자원봉사자인, 서울 당산중학교의 유민정 교사; 오른 쪽에 서 있는 이는 최초의 ETA 자원봉사자로 임지인 천안에서 거의 매주 상경해서 가르친 Phebe Kim 양)

이를 위해 집행부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심재옥 단장, 이후 개설된 서울지역 프로그램에 교사로 직접 참여하기도 한 ETA 코디네이터인 Stephen Kim 씨와 함께 9월 14에 첫 회의를 가진 이래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영어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고; 둘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격과 자아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도우며; 셋째, 구체적인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지역 평화에 기여한다.

대상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개방하였으나 청소년과 대학생이 주류를 이루었고 첫 해의 참여자가 전국적으로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별도의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가 영어 능력의 부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런 부족을 보충해주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영어로 연결된 보다 넓은 세계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적 세계시민 교육도 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런 목표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첫해 성과는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프로그램 첫해의 성과(지역 시작일순; 8월말 기준 집계)

기관명	시작-종료일	수업시간	학생규모	ETA/동문교사 참가연인원	비고
서울동부 하나센터	2011년 10월13일~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7시-8시30분	매주 6~16명 참가	3/3명	수준별 최대 3개반으로 분반 수업. 여름방학에도 자원봉사자 교사를 충원하여 수업을 지속하는 등 열의 있는 운영.
서울북부 하나센터	2011년 12월3일 ~2012년 4월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8명	6/1명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한국외대 새터민 동아리 중심 운영.
하늘꿈학교	2012년 2월11일~ 6월2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7명	5/1명	
광주북부 하나센터	2011년 11월1일~ 12월17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10~11명 참가	9/1명	하나센터에서 참여 독려 전화를 하는 등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 다른 곳도 비슷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됨.
	2012년 3월21일~ 7월4일	상동	매주 5~6명 참가		
양지새움터	2011년 11월8일~ 12월6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6시		3/0명	배움터의 입지 문제로 조기종료.
광주전남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2011년 11월11일~ 12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5-6시	매주 7~8명 참가	6/1명	
	2012년 3월21일~ 7월4일	매주 수요일 오후 5-6시	매주 4~12명 참가		
부산YWCA	2012년 3월15일~ 6월28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9시	매주 3~8명 참가	3/1	수혜자 중 검정고시 2명 합격. 그 중 1명은 8월말 현재 한동대 수시 합격. ETA들의 열과 성의, 수업의 질을 매우 높이 평가.
대구하나 센터	2012년 3월19일~ 6월1일	학생과 교사가 약속을 정해 진행.	24명	14/0명	첫해만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운영에 직접 관여.

다른 한 편, 자원봉사에 지원한 원어민 교사의 수업자료 준비 비용, 교통비, 식비 등을 실비 지원함으로써 봉사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2011년 12월 2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위촉된 이재규 기금 모금위원장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에 노력한 결과, 동문들의 모금과 "스탠더드 차터스 은행"의 지원(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850,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 가운데 1,594,200원의 교통비를 ETA들에게 지불하였다. 이외에 조성호 동문이 2012년 1월, 자신의 저서 "조성호 교수의 재미있는 물리돋보기" 50권을 기부하여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외부의 기여로는 앞에서 언급한 "스탠더드 차터스 은행"의 기부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 기금을 모금한 지난 정기총회의 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프로그램 초창기에 자가 학습 교재를 제공한 "잉글리시무무"사가 있다. 여기에 대해 동문회는 지난 총회에서 감사패를 증정한 바 있다. 한 편, 2011년 11월 3일에서 6일 사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풀브라이트 총회에 참석한 권오량 회장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영어교육에 대해 듣게 된 외국 동문들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2011년 12월에 열린 동문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내 동문들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바 있다. 또, 2012년 3월에 내한한 Shelby Lewis 박사(Presidentially-appointed member of the 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도 8일 서울동부하나센터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해주었다.

한미 양국 정부도 음양의 지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성장을 도왔는데, 특히 주한미국대사관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된 대구 지역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고 지난 1월에는 휴대용 스피커, 사전, 노트 등의 학습 비품을 구매하여 각 지역 프로그램에 직접 우송해주었다. 덧붙여, 8월에도 비품 가운데 소모품을 보충해주는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통일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각 지역 하나센터의 관심을 환기하여 하나센터 측 프로그램 책임자들의 열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 프로그램의 기둥이었던 자원봉사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봉사에서 느낀 보람의 일단은 다음에 수록한 부산 만덕고등학교 이지혜 교사의 소감문에서 생생히 드러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2012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2012년 가을학기부터는 대전, 목포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서울북부하나센터의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ETA의 참여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겨울 특강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또, 개별 하나센터에서도 수준별 분반 수업이 시도되고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기부금을 송금할 수 있는 계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예금주: 풀브라이트동문회
계좌번호: 012542-02-132952(우체국)

자원 봉사자 명단(시작일순)

프로그램	역할	이름
서울동부하나센터	영어교사	Phebe Kim, Hyesung Oh, Christopher Propst, Jenny Skiba
	동문코디네이터	박은희(수원여고), 이선주(부천여고), 유민정(서울 당산중)
광주북부하나센터	영어교사	Anthony Cho, Kyle Ferrier, Edward Fosse, Di-Hoa Le, Henry Lyford, Jacob Owens, Esther Min, Emily Potosky, Ryan Walsh
	동문코디네이터	서정구(나주 금성고)
양지새움터	영어교사	Edward Fosse, Esther Min, Nida Sanglimsuwan
광주전남북한이주민센터	영어교사	Kyle Ferrier, Edward Fosse, Eric Horvath, Di-Hoa Le, Esther Min, Jacob Owens
	동문코디네이터	지은정(광주여고)
서울북부하나센터	영어교사	Zainab Abdul-Rahim, Leora Aquino, Aaron Branch, Jessica Meckler, Jacob Philips, Andrea Sohn
	동문코디네이터	최성일(서울 신일고)

서울 하늘꿈학교	영어교사	Samuel Han, Luke Icenogle, Ekaterina Mozhaeva, Lisa Porter, Elizabeth White
	동문코디네이터	박신영(국립국제교육원 서기관)
부산YWCA	영어교사	Emma Fisher, Hogan Medlin, Tiffany Yang
	동문코디네이터	이지혜(부산 만덕고)
대구하나센터	영어교사	Kirby Cook, Kelly Crawford, Sarah Degerman, Alia Jones, Emilee Lehenbauer, Colleen Mayo, Bruce Park, Erin Stauber, Brian Watts
천안꿈학교*	영어교사	Korena Burgio, Leslie Kang, Dianna Kriegh, Nicole Muyskens

* ETA 자체 운영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어 원어민 ETA 및 한국의 동문 교사들에게 감사 편지와 증서 수여

동문회는 2011-2012년에 탈북청소년 영어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어 원어민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 및 한국의 동문 교사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냈고 봉사활동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감사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ULBRIGHT

KOREA FULBRIGHT ALUMNI ASSOCIATION
Fulbright Building, 168-15 Yomni-dong, Mapo-gu, Seoul 121-874, Korea
TEL: (02) 3275-4000 FAX: (02) 3275-4028 E-MAIL: kfaa@fulbright.or.kr

Letter of Appreciation

October 15th, 2012

Dear _____:

We, Korean Fulbright Alumni, would like to extend our deepest appreciation to you for your wonderful volunteer service for the first year (2011-12) success of the English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social workers and the students at the regional hosting centers and institutions all highly praised and thanked for your excellence in teaching and devotion to building the bridges of understanding.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uilt through your interactions with the students will help them play an important role in replacing the final cold war with stable peace and regional prosperity. In that sense, you went the extra mile in realizing the Fulbright spirit, as you put in your precious time and energy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English program in addition to your regular teaching mission in your assigned school.

Thanks to your excellent groundwork, the English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being continued and expanded in many cities in Korea, with more ETAs enthusiastically joining in the volunteer service.

We thank you again for your great work, which we believe will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by the students you taught. We hope your experience will be helpful to you in your future, too.

Sincerely yours,

Oryang Kwon, Ph. D.
President, Korea Fulbright Alumni Association

*P. S. In order to officially show our appreciation we would like to send you a certificate of service that we hope can supplement your memories of your participation in the English Teaching Program for NK Defectors. For this reason as well as for our wish to keep in touch with you, we would like to have your mailing addresses and other pieces of contact information through which we can reach you. In a reply to this e-mail, please type in you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your mailing addresses. Thank you.

KOREA FULBRIGHT ALUMNI ASSOCIATION
Fulbright Building, 168-15 Yomni-dong, Mapo-gu, Seoul 121-874, Korea
TEL: (02) 3275-4000 FAX: (02) 3275-4028 E-MAIL: kfaa@fulbright.or.kr

_____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 권오량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동문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으로 북한이탈주민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각 지역 하나센터에 뿌리내리게 되었고 망외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봉사와 참여의 문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거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더욱 넓은 지역에서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수혜자 가운데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인재가 자라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자발적 헌신과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감사의 정이 더욱 짙어집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동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깊은 가을의 좋은 결실들을 맘껏 누리고 계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
권오량

한편 봉사활동 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ertificate of Service

_____
Fulbright ETA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named person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English Language Educ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sponsored by the Korea Fulbright Alumni Association in 2011-12

November 30, 2012

Oryang Kwon, Ph. D

President, Korea Fulbright Alumni Association

영어교육 자원봉사 소감문

만덕고등학교 교사 이지혜, 2010 Fulbright Fellow

약간의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그분들과 만났던 3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7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기에 남들 앞에 설 때 떨리거나 긴장되는 건 이미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먼저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되고, 말 그대로 '몸 둘 바를 모르는'기분을 느꼈었다. 어쩌면 새터민에 대한 막연한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쭈뼛거리던 나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온 건 그분들이었다.

영어를 정식으로 배워본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첫 수업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하기와 자기소개하기 표현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끌어주시고 나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새터민들 사이에서 주로 통역과 보충설명을 맡았는데, 그날 배운 표현을 원어민 선생님들께 그대로 써 보고 외국인에게 자신이 영어로 한 마디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껏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따뜻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게 되는 행복감… 입시위주의 주입식 학교교육에 늘 익숙해져 있던 나는, 배움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에는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막막해했던 그분들

은,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영어와 친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먼 거리를 달려가야 하는 나의 육체적 피로를 정화시키고 오히려 가슴 설레는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것 같다.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다. 5월에 원어민 선생님들의 일정으로 인해 한 주 수업을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지난 주에는 수업이 없어서 집에서 편히 쉬시고 좋으셨죠?!"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가끔 생기게 될 때의 학생들의 반응을 생각하며, 이분들도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예상하고 인사차 물어본 것이었는데, 그분들의 대답은 나의 예상을 정확히 빗나갔다. "아니요… 집에 있으니 심심하고 혼자 공부하려 해도 잘 안되고… 그것보다도 선생님들이 이제 영영 안 오시게 될까봐 걱정이 됐어요." 진지하면서도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있는 그 분들의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심으로 배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수업이 세 달째 접어들 때에는 놀랍게도, 비록 간단한 방식이긴 해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도 표현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느꼈는지 모른다.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 한 칸씩 채워져 가는 모자이크… 처음에는 영어 자체를 무척 낯설어 했었지만, 어느 새 영어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 그분들의 용기와 열정은 정규 학교에서 입시공부를 하는 그 어떤 학생에게도 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마지막 수업 때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수업해 주어서 고맙다는 영어로 적은 편지는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배움이란 것은 시기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성실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귀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행운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매주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해 와서 성심껏 배움을 베풀어 준 풀브라이트 원어민 교사들에게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나에게 배움의 궁극적 아름다움이라는 초심을 다시 일깨워 준 아름다운 영혼과 용기를 지닌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의 박수를 보낸다

북한이탈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및 지원금 지급

동문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풀브라이트 원어민 ETA들의 탈북청소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을 상대로 모금을 하는 한편,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접촉하였다. 권오량 회장과 이재규 모금위원장의 공동 명의로 회원들에게 모금에 동참하도록 호소문을 보내는 한편, SC 제일은행을 접촉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SC 제일은행이 3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모금에 동참하였다. 다음은 모금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이다.

입금자	입금액(원)
강성학	200,000
고동원	100,000
권오량	1,000,000
김성연	100,000
김세영	100,000
김영수	100,000
김인철	500,000
김일곤	100,000
김정매	100,000
김정욱	200,000
김준현	100,000
김판석	300,000
김혜숙	100,000
서동희	100,000
송기원	100,000
양현권	100,000
우동기	300,000
윤복자	500,000
윤영미	200,000
이대식	100,000
이미순	100,000
이병규	300,000
이상만	50,000
이완기	200,000
이용훈	100,000
이재규	500,000
이홍수	300,000
정동수	100,000
조성표	200,000
최영	500,000
최창수	100,000
합계	6,850,000

이와 같이 모금된 기금은 ETA들의 교통비로 지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풀브라이트 ETA들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행되므로, 교육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교통비는 지급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는 ETA들이 거의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하나센터나 하늘꿈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해 비수도권(천안 등지)의 ETA들이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게 되는 경우나, 시내에서도 정규 학교 수업 후에 하나센터의 교육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시내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2011-2012년도의 ETA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성	이름	지급 총액(원)
1	Abdul-Rahim	Zainab	119,000
2	Aquino	Leora	20,800
3	Cho	Woon	45,600
4	Fosse	Edward	51,200
5	Han	Samuel	59,200
6	Icenogle	Luke	133,200
7	Kim	Phebe	494,000
8	Lyford	Henry	43,200
9	Meckler	Jessica	74,000
10	Min	Esther	86,000
11	Mozhaeva	Ekaterina	59,200
12	Phillips	Jacob	103,600
13	Propst	Christopher	110,000
14	Sohn	Andrea	118,400
15	Walsh	Ryan	76,800
	합계		1,594,200

 <풀브라이트 ETA 탈북청소년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 모금 참여자 명단 2012.11.15>

교육은 미래를 위한 생의 모태

진 영 선
고려대 명예교수 /1986 Senior Researcher

하나의 씨알에는 큰 숲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이 씨알이 터뜨려져 싹을 내고 나무로 성장해서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실력배양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약이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과제'인 교육은 그 시대의 세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교육은 인류상이 담겨진 인류의 기본이념과 그 정신을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21세기의 교육의 세계화가 절실히 강조되는 이때 자연우주의 원력도, 자유와 민주의 건전한 확립도 세계사회의 교육성의 인식과 자각의 여하에 있을 것입니다.

창의인성 교육은 자연의 원리에 입각한 진리적이어야 하고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형성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용기를 가진 정신자세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자질을 계발시키고, 강렬한 정의 흥미가 생기게 하는 진수를 인식가치로 삼게 해야 합니다.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전통적 육아법인 '단동십훈(檀童十訓)'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도리도리(道理道理)", "짝짝궁"(作作弓), "건지곤지(乾地坤地)", "깍궁(覺弓)", "잼잼(持闇持闇)"하며 아기의 인지를 발달시키는 이 놀이는 단동치기 십계훈(檀童治基 十戒訓)의 줄임말로 '단군왕검의 혈통을 이어받은 배달의 아이들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가르침'을 일컬음입니다. 실로 심오한 교육철학과 지혜가 담긴 놀이식 교육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라부라(弗亞弗亞) 아이의 허리를 잡고 좌우로 기우뚱 기우뚱하는 것으로, '불'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는 땅에서 올라간다는 의미로 출생의 이치를 일깨운다. 자기 존중심이야 말로 사람이 스스로를 살게 만드는 힘의 근원임을 가르치는 것.

② 시상시상(侍想侍想) 아이를 앉혀 놓고 앞뒤로 끄덕끄덕 흔들면서 '시상시상'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형체와 마음은 太極에서 받았고 기맥(氣脈)은 하늘에서 받았고, 신체는 지형에서 받은 것이므로 아이의 한 몸이 곧 작은 우주(宇宙)다. 그 때문에 우주를 몸에 모신 것이니 매사에 조심하고 하늘의 뜻,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라는 의미.

③ 도리도리(道理道理) 각궁(覺躬)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으로, 이리저리 생각해 하늘의 이치와 천지 만물의 도리를 깨쳐서 도의 생활을 하라는 의미이며 그 나이에 고개를 흔들면 아이들의 신경 발달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고 한다. 깍궁깍궁(각궁각궁・覺弓覺弓)은 양손을 눈 옆에서 쥐었다 펴는 것으로 자신을 깨달으란 의미다.

④ 지암지암(持闇持闇) '잼잼'으로 익숙해져 있다. 다섯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세상의 밝고 어두운 것을 가리고 그윽하고 무궁한 진리를 두고두고 헤아려 깨달으라"는 뜻.

⑤ 건지곤지(乾地坤地)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왼손바닥 가운데 찧는 동작으로 건(乾)은 하늘, 곤(坤)은 땅이므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으면 천지간 무궁무진한 조화를 알게 된다는 뜻이며 음양의 조화를 잘 배우라는 의미이다. 더구나 손가락으로 반대 손바닥을 찧는 것은 하나의 혈점으로 좋은 자극이 되는 곳이다.

⑥ 섬마섬마(西摩西摩)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서(立)라는 말로 섬마섬마라고 한다. 건운(乾運)에서 곤운(坤運)으로 돌아설 때는 정신문명인 강상(綱常)이치만으로는 안 되므로 서마도(西卍)에 입각한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발전해 나가라는 뜻이다. 섬마섬마는 '따로따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 굳건히 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⑦ 어비어비(業非業非) '애비애비'하면서 무서움을 가르치는 말로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일러 주며 커서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⑧ 아함아함(亞含亞含)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내는 동작. 두 손을 가로모아 잡으면 아(亞)자의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천지(天地)와 좌우(左右)의 형국을 뜻하며 아군(亞君) 아제(亞帝)를 이 몸에 모시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⑨ 짝자궁 짝자궁(作作弓 作作弓) 두 손바닥을 마주치며 소리내는 동작. 활궁(弓)자를 등지어 두개 쓰고 밑에 하나를 그으면 아(亞)자가 된다. 활 두개를 화살하나 위에 놓은 꼴처럼 두 손을 마주치면 아(亞)자의 형국이 되니 이것은 음양의 천지조화와 태극의 상태를 상징한다.

⑩ 질라라비 훨훨(呵備 活活議) 팔을 훨훨 치며 춤추는 동작.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갖추고 지기(地氣)를 받아 생긴 육신(肉身)을 활활(活活)하게 자라도록 작궁무(作弓舞)를 추어가며 즐겁게 살아가자는 뜻.

이렇듯 아이는 지각과 몸이 서서히 우주의 법도에 맞는 놀이와 더불어 싹을 틔우고,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포근히 앉아있는 한옥에서 자라면서 자연 속에서 깨우쳐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민족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한지로 바른 창에는 나뭇잎, 꽃잎들이 들어있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나무의 그림자가 깊이 있는 묵화를 그려내고 바람의 움직임은 생명을 더해줍니다. 방 안에는 문자도, 책가도등의 병풍이 있지요. 동서양의 자연정신과 창의・인성 교육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문자를 회화적인 이미지로 그린 문자도(文字圖)는 유교의 논리관을 알기 쉽게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孝), 형제는 우애로우며(悌), 나라에 충성하고(忠), 신의를 지키며(信), 예의를 알며(禮), 의로우며(義), 청렴한 마음으로(廉), 수

치를 안다(恥)고 하는 유교의 덕목을 쓴 문자로 교육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詩·書·畵의 만남을 보자면, 조선시대의 문인화가들은 기본적으로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일체를 이루어서 시문학과, 글씨, 그림이 분리되지 않는 문인적 삶의 표현이자 인격의 드러냄이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시가 곧 그림이고 그림이 곧 글씨인 경지였습니다. 서양미학, 서양미술사에서는 하나의 작품 세계에서 그 작가의 인품을 말하는 일이 거의 없으나 동양미학에서는 인품을 작품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고의 미적 덕목입니다.
16세기 들어 르네상스기의 주요 예술가들은 자신들을 조각가, 화가, 건축가 등 단순한 장인적 기능인이 아니라 중요한 인문학적 배경을 가진 미학적 숭고미를 탐구하는 연구자들로 인식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가 신'으로 불리웠던 '신의 손'을 가진 미켈란젤로가 가장 불리우고 싶어한 이름은 건축가, 조각가, 화가, 시인이 아닌 '철학자 미켈란젤로'이었습니다.
백색을 숭상하고 흰색을 즐겨쓰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백색미 전통은 선천적으로 생활 속에 멋지게 녹아 흰 옷을 즐겨 입었고 그런 순수하고 꾸밈없는 심성으로 백자 항아리를 빚어 오늘의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흰 빛을 좋아하는 담담한 우리 민족의 마음씨와 거짓없고 꾸밈없는 생활 성정에서 우러나온 것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때 경상제국대학의 안과교수로 있던 한 일인(日人)이 한국 사람의 가시적인 감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백색의 색상표를 20여 가지로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늘어놓은 뒤 일정 시간만 보여 주곤 다시 그것을 흩트려 놓고 나서 제자리로 맞춰보도록 했더니, 일본인 표본 그룹과 한국인 그룹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거의 순서를 맞추지 못했는데, 한국인은 그 색깔의 미묘한 순서대로 거의 정확히 늘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렇듯 우리 민족은 흰색에 대해서 특수한 감각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고 볼 수 있습니다.

* 초중고 교사를 위한 특강 <한국적 창의 인성 교육> (2011년 8월 8일 서강대학교)

바흐의 성공, 쇤베르그의 실패

이 혜 정
소프라노, 1994 Fulbright Fellow

20세기 초 작곡가 쇤베르그는 호언장담 했다. 앞으로 십년 후면 자신의 음악을 대중가요처럼 모든 사람들이 흥얼거릴 것이라고... 17세기의 바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 보면 바흐는 성공한 음악가이고 쇤베르그는 실패한 작곡가이다. 17세기 바흐의 음악은 변덕스러운 기호나 유행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졌다. 그의 음악 중심에는 인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멜로디를 들으며 시대와 세대를 관통해서 그가 의도한 바와는 상관없이 음악적 메시지와 예술적 아름다움에 반하게 된다. 좌절감을 극복하고 평상심으로 되돌아오는가 하면 오히려 평상심을 잃고 고뇌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17세기부터 여러 음악적인 전환기를 거쳐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음악은 우리 생활감정에 잔잔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클래식의 대중성이 아닐까? 반면 쇤베르그의 음악에는 과학성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수학적인 함수관계와 자연의 법칙을 어찌 보면 몰인격적으로 연결시켜 음악의 또 다른 세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규칙성과 항상성 차원에서 음표의 조화와 충돌을 일으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주고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성을 과학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쇤베르그는 음악의 대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는 데 그치고 만다. 음악적 아름다움을 수리적 공학적 계산법으로 새롭게 창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청중들은 그 같은 제안을 본능적으로 거절했던 것이다. 마치 전문가들이 위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그 분야에서 혁명적 진로를 제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반인들은 관점의 난해함으로 인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함의를 폄하해 버리는 경우와 유사한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대조적인 두 작곡가를 비교하면서 음악적 아름다움에 녹아있는 정서는 단연히 인간중심의 감성적 수용에서 찾아야지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분석 측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동유럽을 여행했다. 모차르트, 베토벤, 드보르작. 스메타나, 쇼팽, 리스트 등의 생가나 그들이 연주했던 역사성 깊은 극장을 둘러보았다. 이들 위대한 작곡가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추적하면서 음악을 직접 듣지 않았어도 그들의 멜로디가 가슴에 와 닿는 듯 소중한 경험을 했다. 여름 음악축제 기간에 잘 맞추어 찾았던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에서는 몇 번의 귀한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쇤베르그의 제자 베르그와 베베른의 음악이 연주되었던 비엔나 필하모닉의 연주에 대해 우리 가족은 별다른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나와 같은 전문가는 최소한 현대 음율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귀와 가슴만 단순하게 내밀었던 내 가족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다. 왜 바흐가 성공했고 쇤베르그가 실패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 쇤베르그(Arnold Shoenberg; 1874-1951)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12음계의 창시자. 제1차 대전 직후 비인에서 제자인 베베른, 베르그, 벨레스 등과 함께 연구하여 <피아노곡 작품 23,1924>으로 12음 음악의 기법을 완성하여 無調的 작곡의 심미적·논리적 기초를 확립했다.

국제사회에서 공적개발원조의 현주소와 한국의 역할

김 태 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4 Fulbright Fellow

지구적 빈곤퇴치와 질병감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2000년 9월 유엔이 개최한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결정한 8가지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최빈국들이 그 주요 수원국의 대상이 되는데 공여국은 지구적 공적개발원조의 조달부터 분배까지 조절하는 흔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라 불리는 선진공여국 클럽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모든 선진공여국이 국민총생산의 0.7%까지를 공적개발원조로 사용할 경우 제프리 삭스(Jefferey Sachs)가 주장하듯이 빈곤은 지구상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유엔 또한 2015년까지 이 기준치에 만족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제적으로 이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공여국은 극소수이며 보통 북유럽국가들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 와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정도가 선도적으로 0.7%를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OECD-DAC가 내린 정의에 의거한 공적개발원조는 국가간의 원조로만 국한시키며, 개발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져야 하고, 지원된 원조의 최소 25%가 양허성으로 조건없이 수원국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과 공여국 간에 양자간 관계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보다 선호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양자간원조가 다자간보다 공여국이 수원국에 미치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고 제3의 다른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는 만큼의 관리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조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관련 사업에 공여국 자국 기업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자가 연루되는 구속성원조를 지양하고 있지만 많은 공적개발원조사업에는 공여국 국내 이익당사자들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국제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공적개발원조의 성격은 단지 0.7%라는 수치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원조의 전달방식에도 다자원조와 비구속성원조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혁되어질 때만이 공적개발원조의 책무성이 확보되어지고 빈곤퇴치를 위한 진정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공여국과 더불어 최근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을 위시한 신진공여국 그룹이 무서운 속도로 공적개발원조라는 미명하에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권을 독식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목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의 지대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데 이는 소위 '남남협력'이라는 새로운 원조형태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원국 자체도 현재 수원국으로 선진공여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실정이라 앞으로 공적개발원조가 신진공여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21세기의 공적개발원조는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수준에서 예측성을 불허하는 형태로 빈곤퇴치와 질병감소라는 인도적 목표를 둘러싼 전략적 원조전쟁이라는 이중성을 자아낼 확률이 높아진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의 현주소는 한국의 향후 개발원조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2009년 10월에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은 공식적으로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가 되었고,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한국 성공담의 비법을 공적개발원조에 투영시켜주기를 원하는 주문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의 하나인, 선진공여국과 수원국의 책임있는 연대의 연결고리로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부각되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구속성원조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다자간 원조보다는 양자간 원조의 형태가 강하여 원조의 전략적 이해가 가시적으로 파악된다는 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0.7%에 크게 못 미치는 2015년까지 0.25%로 상향된다는 원조 규모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원조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가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원조총회처럼 국제적 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수원국과 공여국이 함께할 수 있는 개발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국과 같은 신흥원조국에 대한 정책적 조율과 규제를 선진공여국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도모할 수 있고, 단지 무상원조의 확대가 아닌 기술원조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들을 정책적으로 수원국의 현지상황에 맞게 조율되어 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 조셉 나이(Joseph Nye)가 연성권력(Soft Power)를 피력했듯이, 개발원조는 한국가의 연성권력 확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연성권력은 비단 공여국의 국익 확대가 아닌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확대가 수반되며 국제사회가 지난 세기보다는 보다 윤택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물적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이 앞장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지난 뉴스레터(2011.11월) 바로잡습니다

1. 기금모금 명단에 김판석 동문의 이름이 누락되었습니다.
2. 이사 명단에서 '이원용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이원웅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두 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브라이트 동문 근황

강신표 동문(인제대학교 문화인류학/문화사회학 명예교수)
2012. 4. 21.~2012. 5. 26. 서울역사박물관강당에서 매주 토요일 15:00~17:00,「인학, 대대문화문법, 우리 사회 - 문화인류학적 성찰」제목으로 인문강좌를 진행.

권오량 회장(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2012. 10. 8.~11. 8.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으로 봉사.

김명주 동문(충남대학교 영어영문과 교수)
2012. 8.~2014. 7. 한국 문학과 종교학회 회장직 수행.

김성곤 동문(서울대학교 영어영문과 교수)
문화부 한국문학번역원(LTI Korea) 원장에 임명. 뉴욕주립대(버펄로) Distinguished Alumni Award를 수상.

노영재 동문(충남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2012. 1. 1.~2013. 12. 31. 한국 해양학회장직 수행. 2012. 5. 12.~ 8. 11. 여수 해양EXPO 행사 기간 동안, 각종 국제 해양과학 학술대회에 국가 대표로 참여, 홍보 및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World Ocean Forum, IOC/WESTPAC/UNESCO에서도 기획준비위원으로 활동.

라종일 동문(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2011년 우석대 총장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한 학기 케임브릿지 대학 Saint John's College에서 Visiting Fellow로 재직. 2011년 가을 학기부터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석좌교수로 국제정치 강의중. 2011년 책 두 권, "Aristotles의 정치학," "근대세계에 있어서 소설과 정치" 출판.

박근우 동문(전 동의대학교 총장, 현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전 동의대학교 총장인 박근우 동문은 2012. 6. 27. 6.25 참전 헌7학병동지회 회장으로서 6.25 62주년 참전기념 행사 주관.

박진임 동문(평택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2012년 2월,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의 1년간의 방문 교수 마치고 귀국.

서동희 동문(건국대학교 도자공예전공 교수)
2012. 4. 20.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 부회장으로 선출. 2012년도 중국 한국 도자예술 국제초대전을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도자공예전공 주관으로 9월 18일에서 9월 28일까지 개최. 미국 인명연구소(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Board of International Research)에서 2012년 도자공예분야 여성으로 지명.

송상현 동문(국제형사재판소장)
2012. 4. 1.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장으로 선임.

염명배 동문(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2. 4. 1.~2013. 3. 31. (사)한국재정학회(KAPF) 제 28대 회장직 수행. 2012. 4. 1.~2012. 8. 20.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직 수행. 2012. 7. 16.부터 외교통상부 명예정책자문위원직, 2012. 9. 26.부터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직을 수행.

이성일 동문(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명예교수)
2011년 나남 셰익스피어 선집 1, 2권을 번역한 후 이어 2012년 3권, "리처드 3세" 번역, 나남 출판사에서 간행.

이재원 동문(클리브랜드 주립대학 저널리즘 명예교수)
1967(미국), 1988(대한민국), 2002(보츠와나), 2008(네팔) 등 4회에 걸쳐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재원 동문은 성주 이씨의 26대 장남으로서 마침내 1967년부터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2012.11월 고향인 진주와 가까운 경상남도 남해로 이주.

임상빈 동문(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2005년 예일대학교 서양화 석사, 2011년 콜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과 미술교육 박사를 받고 2012. 3. 1.부터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귀국.

최재운 동문(대구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010년부터 운암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후 2012. 9. 1. 지역교육청 업무조정으로 이름이 바뀐 직전 근무처,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으로 복귀.

황소부 동문(경상대 명예교수)
2012. 12. 1. 제 5회 경남수필문학상 수상.

2012-13년도 Fulbright 연구 및 강의/연구 장학프로그램 수혜자

Senior

김광명(Philosophy), 김세용(Urban Design), 김원식(Economics), 김천수(Law), 정재삼(Education), 정형곤(Economics), 정홍주(Law)

Lecturing/Research

심흥수(Political Science), 임종명(History(non-U.S.))

Mid-Career

김승종(Law), 노헌균(American Literature), 신유섭(Political Science), 안병일(Economics), 이창길(Public Admin), 임규건(Business Admin), 전선애(Economics), 정찬모(Law), 조성훈(Economics), 최영진(Film Studies), 최인철(Linguistics)